

‘브랜드로 남는다는 것’의 의미를 곰씹어보라고요?

모차르트의 작품 중 ‘피아노 소나타 11번 A장조 3악장 KV 331’ 들어본 적 있어? 잘 모른다고? 당연해.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번호로 작품을 기억하진 않으니까.

역사에 길이 남을 작곡가들은 작품 수가 많아 후대 사람들이 번호를 붙였어. 모차르트 작품은 쾨헬Ludwig von Kochel이 정리하여 K로 시작하는 번호, 바흐는 바흐의 작품목록이란 의미로 BWV(Bach Werke Verzeichnis), 이런 식이야.

그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좋아하는 유명곡에는 누군가가 이름을 붙여주지. 방금 말한 모차르트 피아노곡의 이름은 <터키 행진곡>이야. 이걸 알지?

그것 봐. 이름을 붙임으로써 존재감이 생긴다니까.

베토벤의 WoO 59번은 <엘리제를 위하여>야. 실제 엘리제라는 인물이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 후대에 악보 출판사에서 그렇게 이름 붙였다고 해. 그렇지만 내가 자네에게 <엘리제를 위하여> 들어본 적 있냐고 물으면 금세 어떤 곡을 말하는지 알잖아. 존재감이 생긴 거지. 휴대폰 벨소리로 흔히 듣는 곡이기도 하니까.

미술 얘기도 해보자.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 가격이 얼마나 될까?

2017년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낙찰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살바토르 문디>가 4억 5,000만 달러(5,000여 억 원)로 최고가라더라. 그런데 이 비싼 그림이 진위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다니 재미있지.

이 작품은 프랜시스 쿡이라는 저명한 미술품 수집가가 샀다가 다빈치가 그린 게 아니라고 판단해 경매를 통해 1958년에 45파운드(7만 원)에 팔았던 거야. 그 후 뉴욕의 달러가 1만